中企 자본유치 '투자마트' 연다

올 6월 개최…투자자-업체 1대1 연결

광주시 참여희망업체 16일까지 모집

광주시가 우수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자본유치를 돕기 위해 대규모 '투자마트'를 연다.

광주시는 5일 "광산업 등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게 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오는 6월 한국투자증권과 공동으로 투자마트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투자마트는 자본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과 민간투자자를 1대1로 연결해주는 '자본유치시장'으로 기업설명회와 맞춤형 1대1 투자상담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광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희망기업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 공고란에서 참가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16일까지 광주시 투자유치기획단(613-408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투자마트= 자본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과 민간투자자를 1대1로 연결해주는 '자본유치시장'으로 기업설명회와 맞춤형 1대1 투자상담을 한다.

시는 한국광기술원·광주테크노파크·한국광산업진흥회·한국투자증권 등 유관 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접수기업에 대한 서류 심사·현지 실사 등을 거쳐 8개사 정도를 참가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신용·기술성·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2일 서울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릴 예정인 투자 마트에 참가하게 할 계획이다.

투자마트에는 삼성벤처·스틱아이티·KTB창투·보광창투 등 10개 창업투자사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8개 참가기업 가운데 4개사는 기업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4개사는 별도의 장소에서 1대1 맞춤형 투자상담을 하도록 주선한다"며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친구 괴롭힘은 범죄"라 가르쳐라

학부모가 알아야할 학교폭력 예방 수칙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www.youthlove.net)가 신학기를 맞아 5일 학부모가 참고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 수칙 10계명과 학교 폭력 피해 감지 체크리스트 12항목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등교하기 전 "잘하고 있어, 참 잘한다"고 칭찬해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이어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녀와 하루 최소 30분 대화하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다"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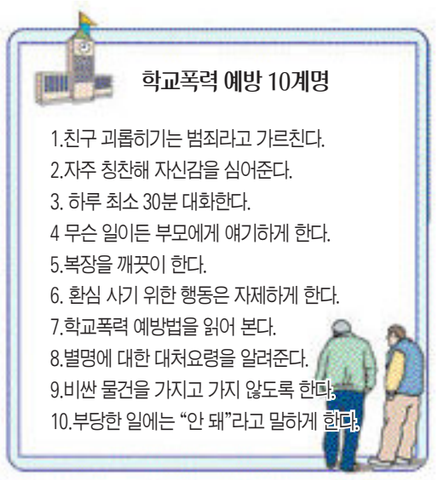
또 자녀의 신체, 의복, 씻기 등에 관심을 갖고,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 바뀐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 등을 읽어 보고, 자녀에게 이전에 불리던 별명이 있다면 미리 가정에서 별명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알려주도록 한다. 이어 자녀에게 비싼 운동화와 휴대전화·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학교에 가져 가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안돼, 하지마, 그만 해"등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는 이와 함께 자녀의 행동변화로 학교 폭력 피해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12항목을 제시하고 이 중 2~3개 항목이 감지되면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관련 기관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체크리스트 12항목은 ▲무조건 전학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한다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며 지각을 자주 한다 ▲ 학용품 및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거나 남겨오는 경우가 많다 ▲전화가 자주 오거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확인을 자주 한다 ▲외부전화에 민감하며 친구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후 우울해 하거나 안절부절 못한다 ▲노트나 연습장에 "죽고 싶다""학교 가기 싫다" 등의 낙서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머리나 배가 자주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다 ▲예전보다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갑자기 도벽이 생겼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지 않거나 친구들과 교류가 갑자기 없어졌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동생 및 엄마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

신한포토닉스에 10억원투자키로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이 최근 광통신 부품업체인 '신한포토닉스'에 10억원을 투자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5일 " 광주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결성된 '광주전략투자조합'의 운영사인 '한미열린기술투자'(주)가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포토닉스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14일 '광주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설명회'을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미열린기술투자(주) 등 서울소재 8개 벤처캐피털 회사가 참여한다. 문의 602-7114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인도 막은 불법 주차 광주시 서구 지하철 상무역 주변 보행로에 5일 오후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최근 상무지구 일대는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려 보행로 파손이 심각한 상황이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경오염물 배출 자율점검하세요

대상사업장 선정땐 행정기관 정기점검 3년 면제

9일까지 추가 모집

환경오염 배출물을 자율점검하는 대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난다. 광주시는 5일 "사업자가 환경법규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 보고하고 행정기관은 정기점검을 3년간 면제해주는 자율점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폐수 등을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 미배출 사업장 등으로 최근 2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곳이다. 이 제도는 업체의 부담과 행정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으로, 허위신고하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지정 취소와 동시에 적색 사업장으로 분류돼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된다.

시는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오는 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오염도 검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자율업소 53곳을 8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모두 560곳이다. 자율점검 대상이 되려면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해 시 환경정책과(613-4154)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행정기관은 인력과 비용 절감, 사업자는 자율점검과 개선 등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市, 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는 7일부터 30일까지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지만, 농림·어업·가사·서비스업·군사시설 등은 제외된다. 담당공무원과 조사원 등이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국체전 성공 개최 질서지키기 결의대회

광주시 서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구청 광장에서 제88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사회단체결의대회를 연다.

대회에는 새마을운동 서구지회 등 12개 사회단체 700여명이 참가하며, 대회 후 양동시장과 신세계백화점 인근에서 환경정비 활동도 할 예정이다.

서구는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전의 경기시설 가운데 70%가 서구에 집중돼 있음을 감안, '기초질서지키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jnews

'태양광 아파트' 광주 11월 첫선

광주지역 최초로 태양광을 활용한 아파트가 11월 첫 선을 보인다.

광주시는 5일 "북구 용두주공 국민임대아파트(711가구)를 태양광 아파트 사업단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단독주택이나 남구 향등마을·조선대 기숙사 시범단지 등에는 설치됐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입주자 부담없이 국비 8억여원을 들여 다음달 착공, 오는 11월 준공된다.이 시스템은 매월 1만8천Kw 이상의 전력을 생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전기를 각 가정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가구당 월 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6일) 손창환 233-7500
- 법무사회 법률상담(6일) 위덕환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상폭력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 광주 YWCA 524-5400 / 주부교실 232-0643~4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 전남경찰청 226-0112 /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